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현숙¹, 하규수^{2*}

¹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²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life of disabled children parents

Hyun-Suk Lee¹, Kyu- Soo Ha^{2*}

¹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²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 자료는 수도권 특수학교, 경기도 특수학교, 주간보호소, 장애인 복지관, 특히 한국장애인 부모회에서 전국에 있는 지회, 지부를 통하여 장애인 부모님을 대상으로 389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종교유무와 월평균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환경요인 모두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 장애정도, 사회네트워크, 개인성격은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가족지지, 장애정도, 사회네트워크, 개인성격의 순으로 높았다. 이 결과는 장애아 부모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받고 아이의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장애아 부모와의 모임이나 장애복지 관련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children parents. Survey data metropolitan area and Gyeonggi-do special schools, day shelter, Disabled Welfare, especially on the national branch in Korea Funny disabled parent meetings, through 389 branches were collected material wealth targeting parents with disabilities. Statistical analysis SPSS 19.0 program utilize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as a control variable,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were perform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crazy and the positive(+) influence a religious presence and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e satisfaction of life, environmental factors all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family support, disability, social networks, personal natur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children parents,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se factors include family support, disability, social networks, net of personality. It was in. The result is handicapped parents receive emotional support and help from family, the lower the degree of disability of the child, as participation in meetings or disability welfare various programs and handicapped parents, and the more it has a positive character increased satisfaction in life that can be interpreted.

Keywords : Disabled children parents, Family Support, Individual character, Level of disability, Life satisfaction, Social Networks

*Corresponding Author : Kyu-Soo Ha(Hoseo Univ.)

Tel: +82-2-2059-2331 email: ksh@hoseo.edu

Received September 15, 2015

Revised (1st October 20, 2015, 2nd November 4, 2015)

Accepted November 6, 2015

Published November 30, 2015

1. 서론

일반적으로 장애아를 둔 가정과 장애아를 두지 않은 가정을 비교한다고 할 때 장애아를 둔 가정의 가족의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한 이유는 장애아의 양육이 장애가 아닌 보통아이의 양육에 비해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양육에 소요되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나 노력이 더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애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는 장애를 가진 아이 자신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들이다.

예컨대, 학습장애아와 ADHD 아동 및 일반아의 실행 기능 특성에 관한 연구,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아동의 실행기능 향상 프로그램 적용 효과에 대한 연구, 장애 관련법을 통해 본 장애아 보호의 질적 제고방안 모색, 장애아 보호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많은 연구가 주로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1,2,3,4,5,6,7].

두 번째는 장애아를 둘러싼 환경요인인 부모를 포함한 형제자매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즉 장애를 지닌 자녀의 출생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게 되며, 경제적 부담감, 부모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의 부족, 친지 또는 이웃으로부터의 고립 외에도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야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출생은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비장애아동 부모에 비해 이혼율이 높고, 비장애아동 부모에 비해 2~3배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교육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 즉 장애아동의 출생은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충격적이고, 단 기간의 치료나 교육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낮으며 또한 완치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므로 아동의 성장, 장애 유형이나 장애정도, 가족의 지지정도, 재정적 어려움에 따라 부모들이 겪는 고통은 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등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장애아 부모 관련 연구보다는

많지 않다[8,9,10,11].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아에 초점을 둔 기존의 연구나 정책의 경향성을 벗어나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장애아들을 힘들게 돌보는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들 요인 중에서도 어떠한 요인이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봄으로써 기존의 장애아를 둘러싼 편향된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장애아 부모관련 사회정책이나 현장의 장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장애아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므로 간단하게 정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학자들 마다 장애를 규정하는 개념에도 차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일반적인 장애를 규정하는 개념은 첫째는 해부학적·신체 구조학적·기능적 및 심리적인 이상성이나 상실의 개념, 둘째는 신체 구조적 또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서 야기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의 개념, 셋째는 기능적인 개념, 넷째는 행동규범의 개념 등이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정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장애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제한이나, 사회관계에서 참여제한의 정도를 장애인으로 판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장애의 정의에 따라 인식도 변화되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사람(people with disability)’으로

보고 있으며, 장애인은 ‘불편한 것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12]. 이와 같이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연령상으로 18세 미만의 장애인을 장애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애아동이라 함은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처럼 ‘18세 미만의 자’라는 연령상으로 구분되는 개념과 함께 성장 발달 과정상의 특성 및 사회적 위치 등과 관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위치로 보아 성인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의존성이 많으며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단순한 역할들만을 부여 받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13].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장애아를 각 영역별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아, 정서장애아, 언어장애아 및 기타 심신장애아로 구분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도 무난할 것이다. 장애아들은 대부분 정서적인 중복장애, 감각기관의 손상, 운동장애, 주위산만 등의 조건들 때문에 실재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들의 능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집단인 가정에서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정립과 이차 기관의 특별한 치료, 교육, 훈련 등의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14]. 이러한 장애아에 대한 기초적인 여러 개념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의 장애아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통 아이들과 다른 불편함을 가진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하고 이러한 아이들이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이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광범위한 장애아로 보아 연구하고자 한다.

2.2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일반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즉 자녀 양육이라는 부담 속에서 자녀를 중심으로 생활이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애아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장애아 양육의 스트레스와 양육부담,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받는 등 일반 정상적인 자녀를 둔 부모나 자녀 양육에서 벗어난 부모와는 다른 독특한 환경요인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을 제시하고 그 환경요인에 따른 부모의 행복감이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은혜 외(2012)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 개념을 삶의 질 및 주관적 행복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의 자기실현적 행복으로 정의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서조절, 삶의 의미,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부모 효능 5가지를 추출하였다. 연구결과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은 자아 존중감, 삶의 의미,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을 가지며, 정서조절 곤란과는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 결정요인은 정서조절 기능과 삶의 의미로 나타났다[15].

어용숙 외(2008)는 일상생활 의존도와 가족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등 가족을 둘러싼 대처자원이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가족 임파워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며,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아동 취약가족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면밀히 사정하여 지지적 중재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또한 가족의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재 방법이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16].

최선희(2006)는 발달 장애아 부모의 삶의 질이 자녀의 장애관련 요인(장애유형, 장애정도, 학교 급별)과 가족요인(연령, 학력, 수입)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17].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들을 고찰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자녀의 장애관련 요인(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둘째는 부모를 둘러싼 대처자원 요인(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 등), 셋째는 부모 자신의 환경특성 요인(정서조절, 부모의 효능감) 등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어느 한 가지 유형에 치우치거나 단편적인 방향에서 연구되어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요인들을 모두 포괄하는 여러 하위요인을 선정하여 장애아 부모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즉 자녀의 장애관련 요인은 ‘장애정도’ 요인을, 부모를 둘러싼 대처자원 요인은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을, 부모 자신의 환경특성 요인은 ‘부모의 성격특성’을 각각 추출하여 연

구하고자 하였다.

2.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은 1961년 Neugarten의 2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지표(Lif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한 후부터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었다. Neugarten(1968)은 삶의 만족도의 개념은 자신의 일상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간주하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니며,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느끼면서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느끼는 것이다.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생 목표나 욕구의 달성정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활동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8].

이러한 삶의 만족도 개념에 대하여 국내 여러 학자들도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면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민진암(2013)은 삶의 만족도의 개념을 개인들이 생활 속에서 각자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로 객관적인 평가만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없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아 본인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를 자신의 사회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효능감과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19].

김정여(2011)는 삶의 만족도와 유사한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안녕감에 대한 일반적 느낌, 안녕(will-being), 삶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등으로 정의한 것에 기초하여 행복에 대한 질문을 삶의 만족도로 변수화 하였다[20]. 이현진(2014)은 삶의 만족도란 삶의 양적, 질적인 측면의 결합 즉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보는 객관적 지표나 수준을 지칭하는 외형적 만족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러한 지표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대수준에 대한 충족, 인생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느끼고 판단하고 인정하는 등 개인이 지각한 심리적 상태와 이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서 오는 만족감이라고 정리한 후 본인의 연구에서의 삶의 만족도의 개념을 생활만족도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가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주관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21].

이규현(2007)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라는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란 노인이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노인 자신의 과거·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감의 합치여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은 물론 생활경험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으로서 기대와 보상, 기쁨, 성취감, 욕구충족, 긍정적 가치, 복지, 행복, 사기의 개념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다[22].

이처럼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정의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의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현재의 나의 삶에 만족하는지, 현재의 사회생활에 만족하는지, 나 자신과 나의 심리적 상태에 만족하는지,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지 등 장애아 부모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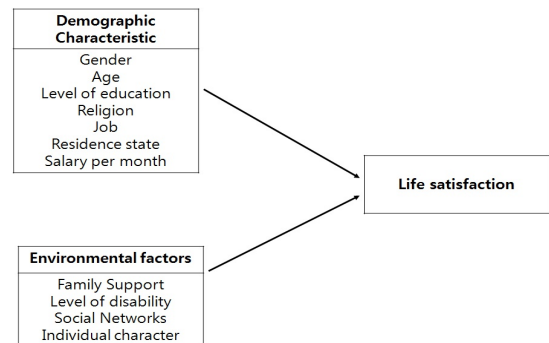


Fig. 1. Reaearch model

3.2 연구가설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이 그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가족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장애정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개인성격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수도권 특수학교, 경기도 특수학교, 중간보호소, 장애인 복지관, 특히 한국 장애인 부모회에 서 전국에 있는 지회와 지부를 통하여 장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398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빈도와 백분율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카이저 규칙이 있는 Varimax 직각회전방법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하였고, 신뢰성 분석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수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	62	15.6
	F	336	84.4
Age	20-29	26	6.5
	30-39	38	9.5
	40-49	149	37.4
	50-59	144	36.2
	More than 60	41	10.3
Level of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graduate	37	9.0
	High School graduate	167	42.3
	College graduate	65	16.3
	University graduate	107	26.9
	More than Graduate School	22	5.5
Religion	Y	254	63.8
	N	144	36.2
Job	Y	206	51.8
	N	192	48.2
Residence state	Owner	257	64.6
	Rent(by year)	86	21.6
	Rent(by month)	26	6.5
	Rent(permanent)/etc	29	7.3
Salary per month	Less than 100	84	2.1
	100 - Less than 200	98	24.6
	200 - Less than 300	81	20.4
	300 - Less than 400	58	14.6
	400 - Less than 500	37	9.3
	More than 500	40	10.1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장애아 부모이며,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62명(15.6%), 여성 336명(84.4%)이었고, 연령은 20~29세 26명(6.5%), 30~39세 38명(9.5%), 40~49세 149명(37.4%), 50~59세 144명(36.2%), 60세 이상 41명(10.3%)이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37명(9.0%), 고등학교 졸업 167명(42.3%), 전문대학 졸업 65명(16.3%), 4년제 대학교 졸업 107명(26.9%), 대학원 이상 22명(5.5%)이었다.

종교유무에서는 있다 254명(63.8%), 없다 144명(36.2%)이었고, 직업유무의 경우는 있다 206명(51.8%), 없다 192명(48.2%)이었으며, 주거상태는 자가 257명(64.6%)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84명(2.1%), 100만원~200만원 미만 98명(24.6%), 200만원~300만원 미만 81명(20.4%), 300만원~400만원 미만 58명(14.6%), 400만원~500만원 미만 37명(9.3%), 500만 원 이상 40명(10.1%)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여성과 40대, 50대이며 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고, 종교와 직업이 있으면서 자가에 월평균 3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4.2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본 연구에 사용한 척도는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과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 장애수용을 측정변수로 하

여 선행연구를 고찰, 설문문항을 발췌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 장애수용으로 구성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항목인 성별, 연령, 학력, 종교유무, 직업유무, 주거상태, 월평균소득을 세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와 사회네트워크는 백은령(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장애정도는 강동욱(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개인성격은 성은미(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각각 활용하고, 일부 문항의 경우 연구자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전체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양옥경(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설문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Kaiser 규칙이 있는 Varimax 직각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고유치 1.0이상, 요인 적재량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값이 0.6이상일 경우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environment

Factor	Item	Component	Eigen Value	Cumulative %	Cronbach's α
Family Support	I get the emotional help and support I need from my family.	.911	3.416	26.274	.924
	My family helps a lot when I make any decisions.	.896			
	I can talk about my family and a lot of my problems.	.895			
	My family really tries to help me.	.878			
Level of disability	Child is almost impossible to live a normal life in the future.	.839	2.444	45.072	.776
	Our children need the help of others in their daily lives.	.797			
	Our children are not well developed than the general population in other functions in addition to compromised function.	.791			
	My child is often compared to that of general accident child in everyday life.	.661			
Social Networks	I participated in self-help groups, social gatherings, school activ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s.	.907	1.951	60.079	.741
	I participated in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nd welfare-related disability support program.	.900			
	There is a special person(friends, close people, neighbors, etc.) giving comfort to me.	.505			
Individual character	I tend not to worry about anything going on.	.852	1.462	71.321	.699
	I have never felt that misfortune.	.820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life satisfaction

Factor	Item	Component	Eigen Value	Cumulative %	Cronbach's α
Life satisfaction	Satisfied with the current life	.860	4.406	62.948	.902
	The current satisfying social life	.825			
	Overall, I will be satisfied to you	.821			
	Satisfying way to spend the day and the days	.790			
	These days satisfied with the psychological state	.780			
	In general, satisfaction in relation to those	.750			
	I feel that they are valuable people	.718			

4.2.1 환경요인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에 관한 총 16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나는 가족으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 나의 가족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준다, 내 문제에 대하여 나의 가족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나의 가족은 진정으로 나를 도우려고 애쓴다 등의 4문항으로서 가족의 도움과 지지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가족지지’라 하였다. 요인 2는 우리 아이는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손상된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에서도 일반인들보다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아와 비교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등의 4문항으로서 아이의 장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정도’라 하였다.

요인 3은 나는 장애아 부모들과의 자조모임, 친목회, 학교 활동 등에 참여한다, 장애복지 관련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사람(친구, 주변사람, 이웃 등)이 있다 등의 3문항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사회네트워크’라 하였으며, 요인 4는 나는 무슨 일이든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

이 없다 등의 2문항으로서 긍정적인 성격과 관련되어 있어 ‘개인성격’이라 하였다.

이상의 4개 요인의 설명력은 전체 분산의 71.321%였고, 3문항의 요인 적재량이 0.5이하로 나타남으로써 요인분석과정에서 제거하였다. 제거된 문항은 사회네트워크에 관한 1문항(내가 위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과 개인성격에 관한 2문항(나는 될 수 있는 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려 한다,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이었다. 신뢰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가 가족지지 0.924, 장애정도 0.776, 사회네트워크 0.741, 개인성격 0.699로서 0.6이상의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4.2.2 삶의 만족도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Table 3와 같이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요즘 하루를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요즘 심리적 상태에 만족한다 등의 7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요인의 설명력은 전체 분산의 62.948%였고,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량이 0.5 이상의 값을 보여 요인분석과정에서 제거된 항목은 없었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0.902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Analysis

Variables	Family Support	Level of disability	Social Networks	Individual character	Life satisfaction
Family Support	1.000				
Level of disability	.032	1.000			
Social Networks	.301***	.077	1.000		
Individual character	.003	.088	.086	1.000	
Life satisfaction	.478***	.231***	.380***	.225***	1.000

*p<.05, **p<.01, ***p<.001

4.3 상관관계 검증결과

본 연구는 가설 검증에 앞서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관관계분석은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를 분석하는 통계분석방법으로, 이를 통해서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를 상관관계(correlation)라고 하며, 상관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간의 연관된 정도를 나타낸다. 상관계수의 범위는 -1.0에서 1.0 사이의 값이며, 이 값이 1.0~0.7(-1.0~-0.7)의 범위이면 매우 강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상관계수를 통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개인성격과 가족지지, 장애정도 및 사회네트워크 간에 상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 변수 사이에는 독립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지지는 사회네트워크, 삶의 만족도와 상관계수가 0.4~0.3 사이에서 약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만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삶의 만족도와 0.2의 낮은 상관성을 보였고, 사회네트워크도 삶의 만족도와 0.3 정도, 개인성격은 삶의 만족도와 0.2 정도의 낮은 상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서로 상관성이 있는 변수들 간에 약간의 관련성이 있

거나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4.4 가설검증 결과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환경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파악해내기 위해서다.

따라서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불연속 변수인 성별과 종교유무, 직업유무, 주거상태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2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환경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환경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 회귀모형의 경우 $F=7.188$,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4.3%($R^2=.143$)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종교유무($t=2.671$, $p<.01$)와 직업유무($t=2.390$, $p<.05$), 주거상태1($t=2.699$, $p<.01$), 월평균 소득($t=3.289$, $p<.01$)이

Table 5. Environmental factors impact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s		Level 1			Level 2		
		B	β	t	B	β	t
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F=1) ¹⁾	.007	.003	.068	-.035	-.018	-.421
	Age	.041	.057	1.126	.032	.044	1.028
	Level of education	.052	.080	1.521	.024	.036	.818
	Religion(Y=1) ²⁾	.193	.127	2.671**	.148	.097	2.439*
	Job(Y=1) ³⁾	.170	.116	2.390*	.113	.077	1.874
	Residence state ⁴⁾						
	Residence state1(Owner= ¹⁾	.280	.149	2.699**	.137	.089	1.148
	Residence state2(Rent by year= ¹⁾	.177	.106	1.865	.039	.022	.306
	Residence state3(Rent by month= ¹⁾	.042	.014	.227	.008	.003	.052
	Salary per month	.082	.179	3.289**	.051	.110	2.402*
Environmental factors	Family Support				.272	.343	7.873***
	Level of disability				.185	.217	4.954***
	Social Networks				.169	.205	4.672***
	Individual character				.152	.175	4.360***
F		7.188***			20.367***		
R ²		.143			.408		
ΔR^2					.265		

*p<.05, **p<.01, ***p<.001. ¹⁾Male=0, ²⁾N=0, ³⁾N=0, ⁴⁾Permanent/Etc=0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월평균 소득($\beta=.179$), 주거상태1($\beta=.149$), 종교유무($\beta=.127$), 직업유무($\beta=.116$)의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월평균 소득이 높고 자가이면서 종교와 직업이 있을수록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단계 회귀모형은 $F=20.367$,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40.8\%(R^2=.408)$ 로서 1단계보다 26.5% 가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종교유무($t=2.439$, $p<.05$)와 월평균 소득($t=2.402$, $p<.05$)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환경요인 모두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t=7.873$, $p<.001$), 장애정도($t=4.954$, $p<.001$), 사회네트워크($t=4.672$, $p<.001$), 개인성격($t=4.360$, $p<.001$)은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가족지지($\beta=.343$), 장애정도($\beta=.217$), 사회네트워크($\beta=.205$), 개인성격($\beta=.175$)의 순으로 높았다. 이 결과는 장애아 부모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받고 아이의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장애아 부모와의 모임이나 장애복지 관련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가족의 지지나 아이의 장애정도, 사회적 네트워크 및 개인의 성격 등의 환경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요인이므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장애아 부모들과의 관계 및 장애복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력을 한다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인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고, 세부가설인 1(가족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장애정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사회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개인성격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도 채택되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 자료는 수도권 특수학교, 경기도 특수학교, 주간보호소, 장애인 복지관, 특히 한국장애인 부모회에서 전국에 있는 지회, 지부 등을 통하여 장애인 부모님을 대상으로 389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종교유무와 월평균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환경요인 모두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 장애정도, 사회네트워크, 개인성격은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가족지지, 장애정도, 사회네트워크, 개인성격의 순으로 높았다. 이 결과는 장애아 부모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받고 아이의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장애아 부모와의 모임이나 장애복지 관련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정책과 함께 그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도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 인프라는 우선 관련제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으로는 장애인 부모를 포함한 장애인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가정 「장애인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화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정책에 의해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60여 개소 정도밖에 소규모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개소 확충과 함께 운영활성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아 부모를 지원하는 현장의 각종 지원프로그램 예컨대,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프로그램,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장애아를 포함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도 수요에 맞게 좀 더 확충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휴식과 정신적 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가족지지’가 나타났듯이 장애아 부모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조부모 등 가족전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재까지 많은 선행연구에서 장애아 부모의 환경요인과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주제가 다루어졌다고 보고,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유형별 비교, 장애아 양육여부에 따른 비교, 장애아의 형제자매 관련 비교연구 등 좀 더 세분화된 새로운 주제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일반 부모와 다른 기준에서 삶의 질이 측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아 부모 특성을 반영한 삶의 만족도 변수가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1] C. W. Song, “Executiv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y,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Children with Normal”, Song, Chan-Wo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10, No. 4, pp. 565-590, 2009.
- [2] J. Y. Yun, H. S. Lee, “A Study on Effects of Executive Function Task Programs o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0, No. 4, pp. 143-170, 2011.
- [3] Y. K. Cho, “The Directions of Promoting the Qualitative Child Care and Education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Implementing the Law Related Disability”, *Special Education Research*, Vol. 8, No. 1, pp. 163-183, 2009.
DOI: <http://dx.doi.org/10.18541/ser.2009.04.8.1.163>
- [4] Y. K. Cho, “The Direction of Edu-care Syste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Amendment of Special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he Enactment of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Support Act”,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47, No. 12, pp. 45-64, 2006.
- [5] I. J. Kong, J. I. Shin, “The Effects of the Awareness of Disorder and Self-esteem on the Social Maturity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JKEIA)*, Vol. 9, No. 2, 2015.
- [6] B. C. Choi, Y. R. Kim, “A Literature Review of Child Maltreatment amo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5, No. 4, pp. 151-174, 2014.
- [7] J. K. Jeon, D. H. Kang, I. Y. Jang, “A Survey on the Satisfaction for Physical Therapy Service in the Disabled Children Daycare Center”,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JKEIA)*, Vol. 8, No. 4, 2014.
- [8] H. C. Chung, “The Influence of Support Surface Rigidity and Visual Information on Postural Control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59, pp. 635-644, 2015.
- [9] I. S. Cho, H. S. Ryu,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 Health Nurs Res*, Vol. 21, No. 1, pp. 46-54, 2015.
DOI: <http://dx.doi.org/10.4094/chnr.2015.21.1.46>
- [10] I. S. Cho, H. S. Ryu, K. I. Moon,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Vol. 18, No 2, pp. 227-237, 2014.
- [11] S. Y. Hong, K. M. Kim, “Effects of a Leisure Education Program on the Leisure Attitude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2, No. 4, pp. 261-275, 2013.
- [12] J. Y. Kim, Y. S. Park, “The reoation between self-concept and stress observed in the primary school pupils depending on the existence/non-existence of a disaboeed sibl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14, No. 3, 2006.
- [13] J. K. Jung, “Failure of the burden of child rearing Family support services research”, M. 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2008.
- [14] J. G. Kim, “Study on the burde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the famil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 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Busan University, 2007.
- [15] E. H. Lee, E. Y. Cho, Kong-Maria, "The Study on Factors of Happiness for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19, No. 2, pp. 249-275, 2012.
- [16] Y. S. Eo, C. Y. Yoon, "The Effects of Independence of ADL and Family' Coping Resources on Parenting Stress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47, No. 2, pp. 167-183, 2008.
- [17] S. H. Choi, “The effects of disability and family factors

on needs of support service and quality of life in parents hav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 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sin University, 2006.

- [18] R. J. Havighurst,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8.
- [19] J. A. Min, "The Effects of the Empower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o f Elderly Participating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Kimrammes-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2013.
- [20] J. Y. Kim, "Study of Child Support Burden and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M. A.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2011.
- [21] H. J. Lee, "A study of variables related to the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 generation and echo boomer generation",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14.
- [22] K. H. Lee, "Policy Suggestions for Raising Satisfaction of Life in Old Age: With a special focus on meeting sexual needs of the aged",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yong ji University, 2007.

이 현 숙(Hyun-Suk Lee)

[정회원]



- 2012년 2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하 규 수(Kyu-Soo Ha)

[종신회원]



- 1998년 6월 : 미국 Touro 법과전문대학원 졸업(J.D.)
- 1999년 6월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졸업(LL.M.)
- 1998년 8월 : 미국 뉴욕주 변호사-미국 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창업, 벤처경영, 경영전략